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결전의 날 밝았다

(2019년 대회)

오늘 바르셀로나 FINA 총회서 개최지 결정
3개도시 경합...광주시 유치단 막판 표심잡기

힘을 가진 유럽표심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행위원 중 유럽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각 4명, 북미와 남미 각 3명이다.

또 FINA 총회 직전까지 펼쳐질 막판 유치활동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도표를 공략하는 도시가 개최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광주시 유치단은 FINA 총회가 열리는 스페인 그랜드 마리아 호텔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에서 18일 급파된 100여명 규모의 유치대표단과 현지교민 등으로 구성된 응원단이 합세해 광주시민의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열망을 FINA 집행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총회가 열리는 스페인 현지 호텔에는 광주를 비롯한 부다페스트, 아부다비 등 3개 후보도시 대표단이 도착,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한창이다. 광주시민들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지원하는 시민 한마당 행사를 여

는 등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

한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8월 중 한 달간(캘리포니아 16일, 마스터스 10일) 열리며,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2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광주시는 대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3조4000억원에 이르는 유발 효과와 2만4000명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의 미래를 업그레이드할 '2019년 제 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를 결정짓는 결전의 날이 밝았다. <관련기사 3면>

개최도시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한국시각 오후 4시 30분~7시 30분)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랜드 마리아 호텔(Grand Marina Hotel)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총회에서 집행위원 22명 중 헝가리 위원 1명을 제외한 21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총 21표 가운데 과반인 11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개최지로 결정되는 것이다. 투표 및 유치도시 발표는 한국시각으로 빠르면 19일 오후 7시 30분께 이뤄진다.

2019년 대회에는 광주와 헝가리 부

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3개 도시가 유치신청서를 냈다. 광주는 2019년 대회만 유치 신청을 했고, 나머지 2개 도시는 2019년과 2021년 대회 유치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국제 체육계에서는 집행위원이 가장 많고, 세계 수영계에서 절대적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하루 앞둔 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광주시 유치대표단 100여명이 광주공원에서 유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유치대표단은 그동안 유치 활동에 참여한 온 광주위원회,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체육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근혜정부 지역균형발전 포기하나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 구체적 실천계획 없어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지역발전 전략에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

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패키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 방안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빠져 있어 5년 동안 지역발전 정책이 퇴색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

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는 시급히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야할 숙제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고흥 해역 올 첫 적조주의보

올 처음으로 여수와 고흥 일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8일 고흥군 내 나라도 동측~여수시 돌산 동측 해역과 경남 통영시 옥지도 서측~통영시 마라도 동측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해역에서는 유해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클로렐라)이 적조주의보 기준치(㎖당 300개체)를 초과한 350~1570개체가 발견됐다. 코클로디니움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이다.

수산과학원은 장마 이후 영양염류 증가, 이달 중순부터 평년에 비해 증가된 일조시간과 일사량, 대마난류의 강세, 1~2도 높은 남해안의 수온분포 등이 적조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알림

매일 만나는 원어민 선생님
영어 자신감이 쑥쑥 올라요

Fun & Talk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광주일보사는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직장인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화상영어 'Fun & Talk'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과 매일 25분씩 인터넷을 통해 1대1로 영상과 음성을 주고 받습니다. 초보에서 고급 단계까지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맞춤형 눈높이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부교재, 뉴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전문 강사진의 철저한 관리와 영어 첨삭지도도 진행합니다.

영어는 아이가 말을 배우듯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하는 언어습관입니다. 'Fun & Talk'는 자유롭고 수준에 맞는 양방향 소통으로 영어를 두려워하던 학생과 직장인들의 말문을 저절로 트이게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뉴질랜드·필리핀으로 떠나는 영어캠프를 마련해 현지 문화와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 주 최: 광주일보사
- 주 관: KJ COMMUNICATION(www.funntalk.com)
- 수강료: 월 12만5000원(1대1 수업, 25분, 주 5회)
- 문 의: 220-0555, 018-693-6604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강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 피부 속부터 밝히면 가질 수 있어요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뮬라가 조명인자를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뮬라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인식하는 헤라만의 앞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이펙터 동성
주름개선기능성
식용의약품안전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HERA

*유효백화침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료구분) www.hera.co.kr